십대의 문화와 세계관 톺아보기

안성희 (CTC 실장, 남포교회 목사)

들어가며

기성세대는 교육자 입장에서 피교육자인 다음 세대에게 바른 세계관을 전달하기 위해 부단히 애쓴다. 교육 현장에서는 바른 세계관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친다. 과거에는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의 이야기에 마음으로 동의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듣는 척이라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특히 십 대는 아예 들으려 하지 않고 딴청만 부린다. 딴청만 부리면 양반이다. "그만하세요!" 하며 박차고 일어날 때면 참으로 난감하다. 진심이 있어도 그 진심을 전달할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 진심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심을 잘 풀어 전달할 실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디지털 네이티브와 아날로그

역사를 보면, 매체(미디어)가 발달하며 기존의 틀에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을 만들었음

을 알 수 있다. 물론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도 미디어의 발달에 영향을 미쳐 쌍방으로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미디어의 키워드는 '디지털'이다. 이 디지털이 만들어 낸 문화를 학자들은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이주민'이라 칭한다.

1)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가 2001년 논문에 처음 사용한 언어로 태어나면서부터 PC, 휴대폰,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환경을 생활처럼 사용하는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듯이 디지털 언어와 장비를 설명서 없이도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2)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 : 외국어를 구사할 때 모국어 억양이 나타나는 이주민들처럼 아날로그적 흔적을 보이면서 디지털 언어를 구사하는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는 하나 원주민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하지는 못한다.
3) 아날로그인 : 디지털 환경을 낯선 세계로 여기며 이방인처럼 잘 적응하지 못한다.

미국에 사는 한인 이민 2, 3세대들에게는 한국어 억양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반면 1.5세대들에게는 한국어 억양이 약있으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문화 차이에 기인한다.간 남아 있다. 언어에 디지털 개념을 도입하면 현재의 다음 세대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아날로그의 억양이 거의 없다. 반면 디지털 원주민을 가르치는 젊은 교사 세대 대부분은 아날로그 억양과 디지털 억양이 공존하는 디지털 이주민이다. 디지털 원주민과 한집에서 동고동락하는 부모세대는 대부분 아날로그인이다(물론 일부 교사와 부모 중 디지털 원주민과 가까운 이들도 소수 있다). 이들에게 디지털이란 낯선 이방인의 언어이다. 한국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언어가 다르면 문화도 다르다.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는 쓰는 언어가 각각 헬라어와 라틴어로 달랐다. 언어 차이는 이해 방식과 사고 체계, 문화의 차이를 낳았다. 오늘날 세대 간의 차이도 언어 차이를 넘어 문화적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팻머스문화선교회에서 청소년팀을 담당하는 권태준 실장은 문자세대와 영상세대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문자를 통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해독하는 강제성이 있으나, 영상을 통한 인식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해독하게 된다. 문자의 경우에는 순서대로 정리된 정보를 축적해 가며 사고하게 되지만, 영상의 경우 한 프레임(1/30초)의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스스로 재창출해 낸다. 문자 인식은 지시적이고 표현의 유연성이 없고 고정적이지만, 영상 인식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서 영상세대는 자유롭게 메시지에 참여하여 유연한 태도로 자신만의 메시지를 발견한다."

〈십 대 사역 세우기〉 중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대표적 원인으로 이러한 문화 차이를 들 수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주민	아날로그
특징	영상세대 : 시각적, 본능적, 감성적, 직관적이다.	영상세대와 문자세대의 특징이 공존한다.	문자세대 : 읊고 그름을 중시하며, 이성적이며 분석적이다.

다른 나라에 갈 때 먼저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운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지만 실제는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다. 따라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다. 물론 다음 세대도 기성세대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인생을 먼저 산 넉넉한 선배로서 먼저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그들도 자연스럽게 어른들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외계인 취급하며 자꾸 멀리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야한다.

이모티콘을 통해 보는 문화 차이

요즘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통해 세대간 문화 차이를 좀 더 살펴보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는 음~♪♬"

유명한 초코파이의 CM송 가사이다. 한국의 정서를 참으로 잘 반영한 가사이다. 한국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 그래서 '남의 집에 몇 년 얹혀 살았더니 느는 건 눈치뿐'이라는 말도 있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에게 '눈치 좀 있어라'고 핀잔을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눈치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를 보면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이다. 정의를 좀 더 보충해 보자면 눈치란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 말하지 않아도 미루어 알아차리는 것이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서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간파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민족 정서상 말하지않아도 분위기와 상대방의 표정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거의 맞다. 그렇다면 이런 눈치 문화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을까? '너 눈치 참 없구나, 눈치로 알아야지'라는 어른들의 말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과연 통할까?

『세이빙 다빈치』에서 낸시 피어시는 팀 켈러의 말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세계 최상급 대도시들의 문화 · 가치 체계가 전 세계의 언어, 부족, 민족과 국가로 전해지고 있다. 이 말은 아이오와나 심지어 멕시코의 아이들이 자기 동네의 어른들보다 LA와 뉴욕의 젊은이들과 더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심각하다. 같은 지역의 어른들이 자신의 아이들과 말이 통하기를 바란다면 대도시의 범세계적 문화와 그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소도시의 십 대들은 같이 지내는 부모와 목회자, 교사들보다 대도시의 십 대들과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는 한국이라는 같은 영토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화, 미디어의 영향 등으로 다음 세대의 문화는 같은 영토 안에 살고 있는 기성세대의 문화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의 조세핀 김 교수는 그의 책 『교실 속 자존감』에서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거나 고집이 세다는 어른들의 평가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어른 세대처럼 전통적인 한국 문화 안에서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들 문화를 보면, 서구에서 유행하는 것이 그대로 한국에서도 유행한다. 조세핀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문화적 충돌과 뒤엉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모바일로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이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웃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을, 우는 모습을 표현할 때는 'T.T'을 많이 사용한다. 주로

감정이 눈에 나타난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표현방식이 다르다. 서구 사람들은 웃는 모습을 ':)'으로 슬픈 표정은 ':-('으로 표현한다. 서구의 감정 표현 이모티콘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처음 보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전형적인 한국 문화권 사람이다. 서구 사람들은 감정을 주로 눈이 아닌 입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서구는 한국보다 좀 더 단순하고 솔직한 문화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한국에 살지만 동시에 서구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눈치로 파악하라는 어른들의 방식이 잘 통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문화 차이이다. 아니면 아니라고, 좋으면 좋다고 직접 얘기해야 안다.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얘기해야 안다. 상대가 화가 났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웃는 아이들이 있다. 그들은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말해 주지 않아서 모를 뿐이다. 물론 한국과 서구의 문화를 이분법으로 무 자르듯이 재단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렇다.

낸시 피어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첫 번째 규칙으로 '네 청중을 알라'고 했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그들의 문화, 세계관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다음 세대에게 바른 세계관을 전달하려면 먼저 그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이 되어야 한다. 소통을 잘하기 위한 첫 단추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요즘 애들은 이상해, 요즘 애들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말하기 전에 그들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반 아이들이나 자녀들 또는 손주들에게 문자나 카톡 보낼 때 '안녕? :)'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그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문화 차이의 뿌리를 찾아서 : 포스트모더니즘 이해

다양한 원인이 있기에 문화 차이를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러한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쉽게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좀 더 근본적인 현상 진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대 흐름 속에서 현상 진단을 논해보고자 한다.

> 언어가 다른 세대에게
> 바른 세계관을 전달하려면
> 먼저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소통해야 한다.
> 그 첫 단추는
> 바로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언어를
> 이해하기부터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모던(post-modern) 시대라고 한다. post란 단어가 '탈, 후기'를 뜻한다면 이전 시대는 모더니즘(modern)이 된다. 특징을 중심으로 각 시대를 살펴보면 근대시대는 이성과 논리, 권위가 중심이 된 시대이고 탈근대시대는 근대시대의 특징이 사라지고 기준이 모호한 다원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아날로그 세대의 경우 그 특징으로 분류하면 모더니즘 세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원주민 세대의 경우는 포스트모더니즘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각 세대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장의 도표와 같다.

	포스트모더니즘	모더니즘
특징	① 기준이 없다. ② 강요와 억압을 싫어한다. ③ 모든 것(심지어 잘못된 것까지)을 관용한다.	① 분명한 기준이 있다. ② 기준을 통해 어느 정도 강요를 요구했고 그 강요에 순종했다. ③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책을 읽지 않으면 대학생 취급을 받기 힘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생들은 책을 읽지 않아도 대학생 취급을 받는다. 예전의 대학가에는 서점이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가에는 술집이다. 예전에는 호스티스들이 여대생 흉내를 내면서 거리를 활보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대생들이 호스티스 흉내를 내면서 거리를 활보한다. 예전에는 국민학생들이 좋아하는 대중음악이나 액세서리를 대학생들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대중음악이나 액세서리를 대학생들도 똑같이 선호한다. 대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이 똑같은 수준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날은 모든 문화가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뒤죽박죽이다. 양심도 죽었고 예절도 죽었다. 전통도 죽었고 기품도 죽었다. 낭만도 죽었고 예술도 죽었다. 그것들이 죽은 자리에 오늘은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 밤이 깊었다. 나는 아직 잠이 오지 않는다."

(이외수의 '장외 인간' 중에서)

이 글을 보면 공감이 되는 동시에 위기감이 느껴진다. 이러한 위기감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포스트모던 시대를 하나의 적으로 규명하고 다양한 대처 방법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진 에드워드 비이스는 그의 책『현대사상과 문화의 이해』(예영커뮤니케이션)에서 "포스트모던 시대는 최상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기회를 포착하고 덫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 시기를 아는(롬 13:11) 과정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스트모던이 형용사로서 이 시대의 특징을 말해 준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특수한 이데올로기이다." 하며 포스트모더니즘(환원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나 포스트모던적(성향)인 것에 대해서는 열어 둔다.

같은 맥락으로 칼빈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제임스 K.A. 스미스는 그의 책『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 하는가』에서 오히려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한다. 이 책의 주된 논지를 따라가면 포스트모던을 문화와 시대 상황과 연결하여 탈근대성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철학운동으로 보면서 교회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이지 않고 포스트모던적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섬기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 보아야 한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대안 찾기 1 : 원리

포스트모던 시대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이중 언어' 구사하기

뉴욕 맨해튼에서 한국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고 외친다면 알아들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내용 안에 진심과 진리가 담겨 있다고 해도 전달방식이 상황과 맞지 않으면 내용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소와 사자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하고 혼인을 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다. 그러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는지라 둘은 다투다가 끝내 헤어지고 말았다. 그들이 헤어지면서 한 말이 있다. "난 최선을 다했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진심은 있지만 그 진심을 담을 실력이 없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 없이 열정만 가지고 나갔을 때 오히려 그 열정은 해가 된다.
나는 최선으로 상대방을 돕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 최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최선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최선은 최악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자기 주체성을 소멸하라는 게 아니다. 자기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최선의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모던한 아날로그 세대가 포스트모던한 디지털 원주민 세대를 섬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중 언어' 구사하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중 언어'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말한다. 좋은 '이중 언어' 구사자는 좋은 번역자라고 할 수 있다. 좋은 번역자는 모국어에도 능통하고 번역하려는 상대방의 언어에도 능통하다고 한다. 그런데 많은 번역가가 "번역은 반역"이라고 한다. 잘못 번역하면 오히려 본뜻을 오도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중 언어' 구사자는 좋은 번역가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② 발달단계 이해하기(고전교육 발달단계에 따라서)
렌델 D. 하트는 그의 책 『흔들리지 않는 고전교육의 뿌리를 찾아서』에서 교육의 단계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모던한 아날로그 세대가
> 포스트모던한 디지털 원주민 세대를
> 섬기기 위한 방법,
> '이중 언어'
> 그들과 소통하려면
> 먼저 이중언어를 구사하라!

> 1단계 : 앵무새 단계(교육의 지침에 맞게 잘 따라온다. 마치 앵무새처럼 알려 주는 대로 따라한다)
> 2단계 : 건방진 단계(무조건 따라하지 않고 토를 달고 이유를 묻는다)
> 3단계 : 시인의 단계(2단계를 잘 넘어가면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단계에 이른다)

보통 초등학교 시기는 앵무새 시기다. 앵무새처럼 의문을 던지지 않고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보통 중학생 시기가 되면 건방진 단계에 이른다. 초등학교 시절까지 당연시하며 외웠던 문제에 대해 드디어 "왜요?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면,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지"라고 하면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어느 시

기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 "왜?"라는 질문은 예의가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일 수도 있다.

한국 교회교육의 현실을 보면 앵무새 단계의 대비책은 충실하나 이후의 건방진 단계는 그렇지 못하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을 보며 많은 학생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요?"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믿음이 없다고 치부하거나 '무조건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그들의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을 줘야 한다.

만약 건방진 단계를 잘 넘어가지 못한다면 이후의 시인의 단계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시인의 단계는 자신이 믿는 바를 자신의 입술로 스스로 고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청년이 되어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킬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 특별히 포스트모던 세대는 강요를 싫어한다. '무조건 믿어'라는 식의 교육 형태를 거부한다. 따라서 신앙교육에 이어 충분한 물음과 대답을 통해 신앙의 근육을 키워 주는 일이 필요하다. 다음 세대가 건방진 단계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질문을 받을 때 당황하지 말고 시간을 들여 충분히 답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대안 찾기 2 : 실제

① 영화를 통한 소통, 영화를 통해 메시지 전달하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 보니 다양한 청중을 만난다. 10대부터 80대까지 참으로 다양하다. 어떤 주일에는 아침에 5~60대를 대상으로 설교한 뒤, 이어서 10대들에게 설교하고, 오후에는 7~80대가 주를 이루는 장례식장에서 설교한다. 이렇게 다양한 청중 중 누구에게 설교하기가 더 편할까? 청소년 사역을 선교단체 시절부터 오래 했지만 어른들이 편하다. 가끔 보면 10대들은 은혜를 피하기로 작정한 아이들 같다. 언어도, 문화도 달라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가르친다는 게 참으로 어렵다.

이처럼 상대하기 어려운 십 대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 해봤다. 그중 자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영화이다. 그렇다고 매주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영화 설교만 하는 것도 아니다.

십 대들은 예배 시간에 잘 집중하지 않는다. 그런데 딴 짓을 하다가도 영화만 보여 주면 집중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에게 매우 익숙한 언어인 디지털이라 그렇다. 난 디지털 이주민이다. 디지털 원주민과 소통하려면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영화를 보고 또 보며 이해한 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교 메시지를 구성하려고 애쓴다. 이러한 애씀이 있어야 다음 세대와 소통이 가능하다. 쉽진 않지만 이러한 노력이 부모와 교사에게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영화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매우 좋은 도구이다.

예를 들면 영화 중 〈나니아 연대기〉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영화를 봐서 아슬란(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한다. 때가 되어 부모님이 아슬란과 연결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면 복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한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나니아 연대기〉를 보고 아빠한테 가끔 "사자가 죽었지. 그리고 다시 살아났지."라고 하자 아빠가 딸에게 "그게 바로 부활이야!"라고 했단다. 부활을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설명하기란 참 어렵다. 그러나 좋은 영화나 책이 복음의 핵심진리를 이처럼 쉽게 전달해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소설 『나니아 연대기』를 읽은 한 독자가 저자인 루이스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주된 내용은 이야기 속의 아슬란이 진짜 누구냐는 것이었다. 이에 루이스는 바로 아슬란은 예수님이라고 답하지 않고 답장을 다음처럼 보냈다고 한다.

> 그분은 첫째, 이 땅에 산타 할아버지와 같은 날에 오셨다. 둘째, 자신을 가리켜 위대한 황제의 아들이라고 하셨다. 셋째, 우리의 잘못을 대신해 자신을 내어 주시고 악한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죽임을 당하셨다. 넷째, 다시 살아나셨고, 어린 양이라고 불린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후 이 학생은 아슬란이 누구인지 알았을까? 필자가 맡은 부서에서는 그동안 『샬롯의 거미줄』, 〈어메이징 그레이스〉, 〈소울 서퍼〉 등의 책이나 영화 등을 통해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을 소개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영상 활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함만 못하다. 필자가 학생들과 『나니아 연대기』 책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에서는 항상 글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여준다. 영상 활용도 중요하지만 영상이 중심이 되면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영상을 활용하되 보조수단으로서 활용할 것과 영상이 담은 내용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상세대이기에 영상만으로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② 형상언어로 개념언어 설명하기

지하철을 타면 노약자석이 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노약자가 아닌 젊은 사람이 앉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임신 초기 임산부일 수 있으나 대부분 젊은 사람이 앉고 싶은 마음에 노약자석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노약자석'이란 문구가 별 효용이 없어 보인다. 만약 문구를 '노약자석'이 아닌 '나는 젊거늘 서서 간들 어떠하리'로 바꿔 보면 어떨까?

문학가인 김형수 씨에 따르면 '노약자석'이 개념언어라면 '나는 젊거늘 서서 간들 어떠하리'는 형상언어라고 한다. 또 사람들은 개념언어보다 형상언어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고 한다. 사람들에게 논리 글인 논문보다 문학적인 글이 감동을 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청년이 되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과 삶의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던 원동력은
첫째, 기독교적 삶의 본이 되는 멘토,
둘째, 기독교적 삶을 사는 동료가 있는 공동체,
셋째, 타 세계관의 도전에 맞서는
단단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이유 때문이다. 사도신경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같은 교리가 개념언어적 접근이라면 『나니아 연대기』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형상언어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세대가 디지털 원주민이라면 우리가 알려 주고 싶은 내용을 형상언어화해서 전달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형상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개념언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후관계를 바꿔 보자는 것이다. 먼저 형상언어로 말하고, 이후에 개념언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이란 말이 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느라 달은 잊는다는 말이다. 영상, 형상언어는 일종의 손가락이다. 이 손가락이 궁극적으로 문자, 개념언어를 가리켜야 한다. 그러나 구름에 가려 개념언어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 형상언어를 활용할 수 있다.

한 예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십 대들에게 설명한다고 해 보자. 제임스 사이어는 그의 책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 세계의 기본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견지하는 바 일련의 전제들"이라고 했다. 이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형상언어화할 수 있을까?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에서는 학문적이고 추상적인 기독교 세계관 개념을 다음 세대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크리스천 씽킹', '생각'이란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본질에 충실하다면 현장에 적실성 있게 용어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스티브 윌킨스와 마크 샌포드가 쓴 『은밀한 세계관』이란 책에 보면 "청년이 되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과 삶의 통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온다. 그러한 청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첫째, 기독교적 삶의 본이 되는 멘토가 있었다.
둘째, 기독교적 삶을 사는 데 헌신된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
셋째, 다른 세계관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기독교적 세계관을 훈련받고 개발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통합적인 삶을 살아가는 좋은 멘토를 옆에서 보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교회 교육에 있어 좋은 커리큘럼을 도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EBS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은 잘생긴 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 젊은 선생님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 주는 선생님'이란다. 우리는 나이가 많고, 능력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일을 고사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곧 우리의 십 대들이 따뜻한 공동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밑바탕이 형성되지 않으면 제아

무리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도 그다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좋은 멘토와 동료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것은 기독교세계관 교육이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면 안 되고 성경이 세계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레슬리 뉴비긴은 '성경은 보아야 할 책(look at the Bible)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보아야 할 책(look through the Bible)'이라고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무수히 많은 세계관을 만난다. 성경이 그저 바라볼 책에 그치고 그것을 통해 보아야 할 책이 되지 않으면 무수히 많은 세계관의 공격 앞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통해 보아야 할 책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다. 멘토와 공동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은 결국 어른이 만들어 줘야 한다. 따라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중요한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어른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 인식과 대안 의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수고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낸시 피어시가 쓴 「세이빙 다빈치」의 한 부분을 인용하며 글을 맺으련다.

> 풀러 신학교의 발표에 따르면, 많은 십대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하나님도 졸업한다." 그러나 해당 연구자들은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요인도 발견했다. 그것이 무엇일까?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성경 공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따로 있었다. 집을 떠나기 전에 여러 의심과 질문을 놓고 고민할 안전한 장소가 있었는지의 여부였다.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고등학생 시절에 의심을 표현할 기회가 있었던 학생일수록 영적,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했다. 다시 말해 십 대들이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벧전 3:15, 새번역) 두려면 본인이 먼저 그 질문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기초 위에 다른 대안을 깊이 있게 모색해 보자.

글 | 안성희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전공은 뒷전에 두고 선교단체의 열성분자로 살았다. 하지만 늘 끊임없이 "전공과 기독교는 무슨 관계지?", "일반 대학생들에게 기독교란 무엇인가?" 란 고민을 하였다. 그러다가 책과 강의를 통해 기독교세계관을 만났다. 이후 예수전도단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고 지금은 남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틈나는 대로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교사와 청소년들에게 강의도 하고 있다. 충남대에서 경영학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M. div)를 공부했다.